

버지니아 울프의 ‘인상주의’와 『제이콥의 방』의 공간적 구성

김 윤 정

I. 서론

버지니아 울프(Virginia Woolf, 1882~1941)의 작품을 이해하고 탐구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종류의 흐름이 있다. 하나는 주제적이며 내용적 측면에서의 이해이고, 다른 하나는 형식주의적이며 구조적인 측면에서의 해석이다. 파멜라 코기(Pamela L. Caughie)는 울프의 비평을 좀 더 포괄적인 차원에서 1985년쯤을 기점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코기의 분석은 울프와 관련하여 대체적이며 주된 비평의 흐름에 대한 방향성을 살펴보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 이 분석은 울프의 작품이 현실 세계와 분명한 연관성이 존재한다는 전제하에 다양한 관점에서 출발하여 분류한다. 코기는 이를 가리켜 “실질적인 본체 라고 명명하며, 이것은 작품이 현실 세계를 재현하는 데 있어 조직적이며 유기적인 결과물임을 암시한다(17). 그는 이에 대한 예시로 1960년대에서 70년대의 울프 비평의 대체적인 경향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한다. 이 시기에 울프와 관련된 비평은 상당부분 작가의 자서전적인 요소와 당시 시대적 화두였던 여권신장의 분위기와 맞물려, 울프의 작품을 정신적이며 내적인 유기적 조직체로 이해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에 대한 결과로 그녀의

소설은 “유기적인 통일성 (Lee 75), “신화적인 원형 (Love 125), 혹은 “균형 잡힌 리듬감 (Caughie 65)이 재현되는 장으로 인식되어져 왔다. 장 러브(Jean O. Love)는 울프의 작품을 “신화적인 사고 를 만들어 내는 통일적이고 균형 잡힌 유기체로 보았고(125), 앨리스 밴 뷰런 켈리(Alice Van Buren Kelly)는 “보편적인 정렬의 힘, 혹은 “보편적인 유형 에 대한 상징성으로 작품을 이해한다(82). 더 나아가 허마이오니 리(Hermione Lee)는 울프 작품 전반에 흐르는 거대하고 반복적인 리듬감이 작품을 유기적으로 연결한다고 강조한다(76).

그런데 소설의 새로운 형식을 주장하는 울프의 에세이는 앞서 언급한 비평가들의 견해와는 또 다른 측면에서의 그녀만의 글쓰기를 제시한다. 울프의 대표적인 에세이는 1923년에 쓰인 「베넷 씨와 브라운 부인」(“Mr. Bennett and Mrs. Brown)이다. 이것은 울프의 소설을 이해하는 데 있어 매우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서 그녀는 빅토리아 시대의 글쓰기 방식, 특히 등장인물을 그려내는 전통적인 방법이 독자들에게 삶 그 자체를 재현하는데 사실적이며 실질적인 도구로 쓰일 수 있는가라는 의문을 던진다. 울프는 “1910년을 전후로 인간의 기질이 바뀌었고 (in or about December, 1910, human character changed), 이에 인간과 현실 세계와의 관계적 구도 역시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다고 선포한다(CE I 320). 다시 말해 이 같은 선언은 과거 문학적인 재현방식으로는 현대인의 변화된 경험을 그려낼 수 없음을 의미한다. 울프는 이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의 인물인 브라운 부인을 상징하고, 그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인상’ 뿐이며 부인의 인상을 구성하는 것은 그녀와 상관관계가 없는, 파편적이며 무수한 생각들이라고 강조한다. 관찰자는 브라운 부인을 관망하면 할수록 그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무엇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녀는 점차 사라지고 무엇이 그녀가 되는지 알 수 없으며 그녀가 남긴 분위기에 스스로를 흠뻑 젖게 할 뿐이라고 울프는 부연한다(CE I 324). 결국 관찰자가 구성한 브라운 부인의 인상은 그녀의 실체와는 점점 멀어지는 동시에, 관찰자로 하여금 그녀에 대한 하나의 허구(a novel about her)를 탄생시킨다(CE I 324). 그럴지라도 울프가 강조한 인상은 흔히들 비평가들이 제안한 정신적이며 추상적인 차원의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인상이 상대방의 마음이나 정신을 반영한 관계적 측면에서의 산출물일지라도, 이것은 분명한 패턴의 양상을 보임으로써 글의 구조를 이루는 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설명할 패턴의 형태는 정신이 투영된 허구적인 또는

비가시적인 내용이 공간적 이미지를 반복적으로 구성함으로써, 유형적인 특징을 띠며 가시적인 것이 된다. 울프 작품에서 인상은 일시적으로 형성되었다가 사라지는 구성물임에도, 작품 속 인물을 창조하는 데 끊임없이 공동의 공간, 즉 관찰자와 대상 간의 공간적 거리를 발생시킨다. 이 공간적 거리는 작품에서 텅 빈 방의 이미지로 재현되어 울프만의 새로운 등장인물의 개념을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장치와 같이 사용된다.

본고의 주장은 울프의 작품을 구조적이며 형식적인 관점에서 이해한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크기의 견해와 맥을 같이 한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크기는 70년대 왕성하게 일어났던 주제적이며 내면적 차원에서의 울프 작품에 대한 접근 방식을 이야기한 바 있다. 이어 그는 과연 울프 소설에 대한 그들의 여성주의적인 비평들이 작품을 집필한 울프의 견해와 의도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를 되묻는다. 크기는 울프가 쓴 에세이의 내용들을 짚어가며, 그녀만의 “새로운 형식 (a new form)의 글쓰기와 “새로운 언어에 대한 갈망 (her desire for new words)을 지적한다(7). 그는 울프가 분명하게 “주제, 화자의 목소리, 등장인물 만들기, 그리고 리듬 (subject matter, narrative voice, characterization, and rhythm) 등을 사용하여 서사문학을 위한 새로운 형식을 창안했음을 주장한다(4). 크기의 의견을 정리하면 울프 소설에 나타난 새로운 형식은 20세기에 접어든 복잡하고 다양한 시대적 분위기와 요청에 부응하여, 19세기 작가들의 글쓰기와는 구별되는 소산물이라는 점이다. 그는 울프가 ‘소설이 내포하는 것, 혹은 소설의 내용’에 집중하기보다, 케네스 버크(Kenneth Burke)의 말을 빌려 독자와 작품 사이에 상호소통의 결과로 생성되는 일시적인 구성물로서의 소설의 형식에 중점을 두었다는 것이다. 크기가 역설하는 상호작용은 소설이 타자의 삶의 이야기를 재현하여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소설의 구조 자체가 독자의 마음의 상태와 반응하여 새로운 양식과 내용을 재창조하는 것을 의미한다.

울프적인 글쓰기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는 『제이콥의 방』은 소설의 새로운 양식을 위한 실험적인 작품이다. 본고는 이 작품이 ‘인상’이라는 독특한 성질의 매개체를 사용하여 울프만의 새로운 인물의 개념을 재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먼저 이를 위하여 울프의 시선으로 바라본 인상주의를 탐구함으로써, 『제이콥의 방』에 제시된 인물의 구성방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본 연구는 울프만의 등장인물의 개념이 소설의 ‘이야기’를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닌, 역동적인 동시에

삼차원적인 입체감을 연상케 하는 서사구조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제시하려고 한다.

II. 울프가 바라본 '인상주의'

울프는 자신의 에세이에서 인상을 매개로 등장인물을 다루고 재현하는 일이 소설의 형식과 관련된 것임을 분명히 한다(*CE I* 324). 비유적으로 말해, 인상은 글의 구조를 세움에 있어 자식의 서로 다른 양극의 힘과 같이 구현되어 나타난다. 각 관찰자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 객체에 대한 인상이 달라지고, 이것은 빛의 스펙트럼처럼 하나의 객체에 대한 다양한 인상을 도출하게 된다. 인상은 각 관찰자의 마음이 서로 다르게 움직임으로써 투영되는 일시적인 구성물이다. 그런데 인상은 관찰자와 대상 간의 순간적으로 형성되는 관계성에 의하여 제시되고 그려진다. 이 때 이 두 객체를 이어주고 연결시키는 공간적 간극이 발생한다. 울프는 단발성으로 형성되는 공간적 간극을 빈 방 혹은 서클 모양의 이미지를 도입하여 설명한다. 이 공간적 형상의 패턴은 텅 빈 방과 같은 공간의 틀을 연상케 하는 연결의 수단들, 이른바 소리, 역동성 있는 움직임, 안개와 같은 분위기 등을 자아내는 이미지와 어휘들을 되풀이하여 사용함으로 재현된다. 작품의 제목이 '제이콥'이 아니라, '제이콥의 방'인 것처럼 소설은 공간의 상징성을 통하여 등장인물을 그려낼 뿐 아니라, 입체적인 패턴을 창출하여 글의 구조를 형성한다.

그녀는 「현대 소설」(“*Modern Fiction*”)에서 인물의 구성 방식과 삶의 연관성을 설명하며 현실 세계를 재현하는 방법을 역설한다. 여기서 인물의 인상은 셀 수 없는 작은 파편들이 끊임없이 마음에 떨어져 그것들 스스로 삶의 형태를 만들어 낸다(*CR I* 154). 울프는 우리의 마음에 떨어진 파편들, 수많은 원자들을 따라가다 보면 이것들이 외관상 단절되고 두서없이 보일지라도 그 패턴(*the pattern*)의 자국을 볼 수 있게 된다고 이야기한다(*CR I* 154). 그 패턴은 시간의 흐름과 맞물려 월요일 혹은 화요일과 같은 일상적인 삶의 일부분으로 구성되어, 그 양상을 드러낸다. 문제는 파편화된 삶의 조각들이 끊임없이 흐르는 시간의 움직임에 귀속돼 있다는 점이다. 관찰자가 대상에 투영하여 만들어낸 인상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각기 다르게 구성되어 흩어지지만, 이것은 등장인물에 대한 하나의 허구적인

내러티브를 만들어내듯 현실 세계를 재현한다. 파편화된 인상으로 구성된 허구적인 내러티브가 하나의 패턴을 형성하며, 삶이라고 하는 현실 세계를 지시한다.

그러나 울프가 주장한 구조적 측면에서의 인상의 개념은 그녀 자신이 처음 이야기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월터 페이터(Walter Pater)의 인상주의(impressionism)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페리 마이젤(Perry Meisel)은 『현대인의 신화』(*The Myth of the Modern*)에서 울프와 월터 페이터 간의 상관관계와 이들 간의 계보를 분석한다. 마이젤은 모더니즘에 관한 논제의 시작을 월터 페이터와 매튜 아놀드(Matthew Arnold)의 상반된 전제에서 출발한다(6). 월터 페이터는 『르네상스』(*The Renaissance*)의 서문에서 “자신의 대상을 실제 있는 그대로 보기 위한 첫 걸음은 자신의 인상을 있는 그대로 알고, 그것을 분별하며, 그것을 분명하게 실현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Abrams 1638). 페이터의 인상주의는 관찰자들에 의하여 구성되기 때문에, 매우 상대적인 것이며 다양한 이미지로 구현된다. 페이터는 인상을 가리켜 “알고, “분별하여, “경험되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한다(Abrams 1638). 즉, 이것은 분명히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가능한 한 가장 구체적인 방식 이다(정명희 299). 이것은 보편적이며 통합적인 틀이 아닌, “이것 혹은 저것을 가장 적합하게 특별한 현현으로 표현하는 공식 과 같다(Abrams 1638).

페이터는 미학적인 비평이 다루는 대상들, 이른바 음악, 시, 인간의 삶을 담아낸 예술적이며 세련된 형태들은 많은 힘들을 부여하는 “틀 에 달려있다고 역설한다(Abrams 1638). 그의 또 다른 에세이 「스타일」(“Style)은 인상들을 식별해내는 작업, 즉 “마음의 모든 작용은 대부분 변별됨으로 구성 된다고 명시한다(Abrams 1645). 페이터는 이 구별됨에 관하여 “불분명하고 복잡한 대상을 구성적 측면들에서 다루는 것 이라고 부연 설명한다(Abrams 1645). 마이젤은 페이터가 역설한 세련된 형태의 많은 힘을 부여하는 틀이 작가의 작품이 된다고 주장한다. 그는 무엇보다 울프를 비롯한 블룸즈버리그룹에 속한 작가들의 텍스트가 매번 다른 측면에서 읽혀지고 다뤄질 수 있는 구조적 장치를 내포한다고 지적한다. 울프에 대한 마이젤의 견해는 그녀의 작품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키워드를 제공한다. 이것은 울프의 소설을 분별하고 해석하기 위해서 텍스트 안에 숨겨진 작용원리 혹은 구조적인 접근방식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앞으로 본고에서 제이콥이라는 인물을 구성하는 방식과 현실 세계를 재현하는 방법을 다루는 데 있어, 무엇보다 근간이 되는 것은 울프의 텍스트에 존재하는

“관계의 힘 이다(Meisel 182). 즉, 관계의 힘은 앞서 설명했던 수많은 인상의 파편들로 형성된 ‘공간적 구성’이다. 울프의 작품에 인물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전통적인 19세기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의 성격을 띤 인물은 없다. 사실주의적인 소설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짜임새 있는 구성, 혹은 플롯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울프의 소설을 흥미롭게 읽을 수 있는 까닭은 파편화된 구조처럼 보이는 내러티브가 매우 치밀한 계획 하에 울프만의 인물과 공간적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제이콥의 방』은 울프의 초기 작품인 만큼 실험적인 측면이 강하게 나타나 있지만, 그녀의 중기 작품에 해당하는 『등대로』(*To the Lighthouse*)는 글의 형식적 차원에 있어 면밀한 체계와 혁신적인 면모를 보인다. 울프의 새로운 형식의 글쓰기는 시대적 흐름과 요구에 부응하여 탄생된 것이다. 이것은 울프뿐만 아니라 당시 현대 작가들이 직면할 수밖에 없었던 고뇌어린 미제(謎題)에서 비롯된다. 이 같은 작가의 탄식과 번민은 다른 어떤 소설들 보다 『등대로』의 2부에 잘 드러난다. 마이젤은 2부를 낭만주의적인 글쓰기에 대한 절망과 탄식으로 보고, 이것이 현대적 글쓰기에 대한 전제 조건임을 주장한다(186). 마리아 디배티스타(Maria DiBattista)는 2부를 “코울리지의 악몽 이라고 지적한다(96). 『등대로』의 2부에는 1부와 3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파괴되어진 자연 세계의 장면들이 연출된다. 이곳은 “여기에는 주전자와 대야, 저기에는 빨강고 노란 달리아가 담긴 화병, 또 저기서는 서랍장의 예리한 모서리와 단단한 몸체를 송두리째 삼켜 버리는 이 어둠의 홍수로 가득하다(TL 126). 2부에 피폐해진 자연은 낭만주의 시인들의 현실 세계를 반영하는 거울의 역할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다. 그리하여 화자에게 자연 세계는 “깨진 거울 과 같고, 이 거울은 낡은 글쓰기 방식이 현실 세계를 담아낼 수 없음을 말해준다(TL 128). 마이클 레븐슨(Michael Levenson)은 현대 작가들이 직면한 글의 구조의 복잡성은 19세기로부터 전수받은 문학적 특성 내지 서술 방식과 새로운 문학적 형식의 충돌이라고 지적한다(xii). 울프가 물려받은 문학적 유산과 현대 작가들에게 부여된 시대적 책임과 요청은 이중적인 구조를 취한 글쓰기의 양식을 낳게 한다. 울프 작품에 나타난 이중적 구조는 넓게는 글의 표면적인 틀과 감추어진 내면의 양식, 인물의 전형적인 특징과 인상으로 형성된 개별성, 그리고 직선적인 시간의 흐름과 공간으로 한정된 시간의 구성 등, 대립적인 요소들을 끊임없이 교차시킨다.

III. 인물의 구성과 텍스트의 공간적 구도

『제이콥의 방』(*Jacob's Room*)은 울프적인 인물의 구성을 가장 먼저 적용하여 실험한 소설이다. 표면적으로 이 소설은 주인공 제이콥(Jacob)의 일대기가 그려진 전기적 형식을 띠는 것처럼 보인다. 이에 대하여 울프의 전기 작가로 유명한 허마이어니 리는 이 작품을 울프의 자전적 요소가 반영된 오빠 토비에 대한 애가로 보는가하면(73), 제인 마커스(Jane Marcus)와 주디 리틀(Judy Little)은 빅토리아 시대의 한 남성에게 대한 성장 소설을 패러디한 풍자적 형식으로, 그리고 여성주의적인 작품으로 이해한다(Marcus 27, 105) 이 같은 비평은 울프의 개인적인 내력과 당시 시대적이며 문화적 배경의 내용들이 결부되면서, 『제이콥의 방』을 작가의 사적인 감정들이 투영된 실증적인 작품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이러한 맥락은 이 소설을 완성도 측면에서 평가절하 하거나 혹은 개인적 문제에 천착해 들어간다는 다소 편협한 생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오히려 린든 피치(Linden Peach)는 이 작품을 “인물의 사회적이고 개인적 발전을 보여주는 내러티브 인 “성장 소설의 구조와 특징 을 전혀 보여주지 않는 소설로 이해한다. 그는 여러 측면에서 “급진적이고 통찰력 있는 읽기로서의 산물 이라고 부연한다(69). 에드워드 엘 비숍(Edward L. Bishop)은 이 소설이 “전적으로 구조주의적인 접근 에서 다뤄질 수 있음을 주장한다(157). 여기서 구조주의적인 접근은 울프가 제이콥의 부채를 의도적으로 삽입함으로 제이콥을 더욱 더 흐릿하게 할 뿐 아니라, 제이콥의 정체성을 스토리의 인과적인 접근방식으로 파악할 수 없도록 구조화했음을 뜻한다(Bishop 148). 소설은 인물의 성격과 취향, 습관 등을 유추할 수 있는 제이콥의 사적이며 내밀한 공간이 항상 비어있음을 언급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제이콥의 방은 “빈 방의 공기는 무심하고, 그저 커튼을 약간 부풀릴 뿐이다. 향아리의 꽃은 약하게 움직인다. 벼들가지로 만든 안락의자의 가지 하나가 삐걱거린다, 거기에 아무도 앉아 있지 않음에도. 1)라고 반복적으로 제시될 뿐이다(38, 186). 이것은 작품이 제이콥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제이콥의 부채와 파악되지 않는 인물의 정

1) 이후 『제이콥의 방』 텍스트에 관한 모든 인용은 쪽 번호만 표시되며 『제이콥의 방』 이외 울프의 다른 작품들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작품명의 영어약자와 함께 쪽 번호를 표시한다. *A Writer's Diary*는 *WD*, *Collected Essays*는 *CE*, *Moments of Being*은 *MB*, *To the Lighthouse*는 *TL*, *The Diary of Virginia Woolf*는 *DVW* 식이다.

채불명과 관련된 내용들을 이용하여 새로운 양식의 글쓰기를 시도하기 위함이다. 울프 자신도 자신의 에세이를 통해 기존의 전기에서 다뤄진 이야기의 패턴을 설명하며, 한 인물의 삶에 나타난 출생배경과 교육수준, 일련의 사건과 행위들을 통해서 그 인물의 정체성을 파악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MB 65).

먼저 소설은 여러 개의 장으로 나누어 제이콥의 삶을 전기적 순서에 따라 서술한다. 작품은 제이콥의 어린 시절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에피소드를 통해 제이콥의 삶을 다룬다. 케임브리지에 입학한 제이콥은 “매우 잘 생겼지만, 매우 어색한, 또는 “멋있고 훗칠하며, 재미있고, 기품 있는, 그리고 체격 좋은 젊은이다(61, 29). 그는 케임브리지 대학시절 학우들과 함께 책도 읽고 열띤 토론을 벌이는 인상을 주기도 하고, 빅토리아 시대의 전형적인 지식인으로 그려지기도 한다. 화자는 케임브리지 대학의 창가에 서서 교정을 내려다보는 제이콥을 “과거로부터 이 선물을 받기 위해 서 있다고 서술하며, 그가 바로 제이콥이라고 거창하게 묘사한다(44). 또한 킹즈 칼리지(King’s College) 교회의 예배장면에는 울프의 글에 자주 풍자되는 권위적이며 경직된 남성들의 세계가 진부하게 기술된다. 여기서 제이콥은 여자들을 개에 비유하며, 그들을 예배에 참석시키면 “예배를 완전히 망칠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자들은 죄만큼이나 추악하다고 생각한다(31). 화자는 제이콥에게 케임브리지 대학생의 특별함을 부여하고, 이 시대의 “계승자로서의 남성성을 강조한다(44). 이것은 당대의 가부장적인 젊은이들이 공유한 전형적인 생각을 보여준다. 제이콥은 여느 젊은이처럼 못 여성들과 로맨스를 경험하기도 하고, 그의 친구 티미 듀란트(Timmy Durrant)의 여동생인 클라라와 사랑의 감정을 나누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심지어 화자는 직업여성 플로린다(Florinda)에게 상처를 받은 제이콥의 감정을 롤러코스터의 이미지에 비유하여 묘사한다. “그의 등뼈인 검푸른 슛돌에서 하얀 불꽃이 흘러나오는 것 같다. 마치 가파른 언덕을 기어오른 지그재그 선로가 급하게 하강해 깊이 아래로, 아래로 떨어지는 것 같다 고 말이다(98).

하지만 작품은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제이콥의 묘사와 관련하여 상충되는 부분들이 많다. 화자는 제이콥을 전통적인 소설 속 주인공처럼 그의 삶에 “관습적인 전환점을 제시하지 않는다(Lloyd 149). 관습적인 전환점은 사실주의적인 소설에서 찾아볼 수 있는 기승전결의 극적인 변화를 의미한다(Lloyd 150). 제이콥의 이야기에는 이 같은 극적인 변화가 없을 뿐 아니라 제이콥의 삶이 단편적인 인상과

에피소드로 구성돼 있기 때문이다. 제이콥이 못 여성들과 벌이는 로맨스의 이야기도 깊이 있거나 상세하게 다뤄지지 않는다. 화자는 그들 간의 일어난 사건을 짙은 단상과 같이 인상적으로 그려낼 뿐이다. 마치 독자들이 제이콥을 판단하고 파악하려는 순간, 화자는 느닷없이 제이콥을 전혀 알 수 없다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사람에 대해 한 마디로 규정하려는 것은 부질없는 일이다 라고 단언하면서 말이다(29). 게다가 화자는 제이콥의 심적 변화를 설명하다가 “그의 마음 속 생각을 우리가 알고 모르고는 또 다른 문제 라고 일언지하에 주인공과 관련된 단서들을 무색하게 한다(98). 더욱이 제이콥이 작품의 주인공인가 혹은 작품 속 실재인가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그가 등장할 때마다 “말하지 않 (129)거나 “아무 말도 없었다 (83), “조용한 젊은이 (59) 또는 “얼굴 근육 하나 움직이지 않았다(61), “움직이지 않고 (63)라는 어휘들이 반복된다.

그렇다면 제이콥은 누구인가? 아니면 무엇인가? 울프는 자신의 일기에 『제이콥의 방』의 집필 목적을 이렇게 밝힌다.

나의 물음은 어디까지 인간의 정신을 구획 지을 것인가이다. 나는 거기에 그것을 엮어내기 위하여 대사들을 너럭히 갖고 있는가? 나는 이 접근방법이 이번에는 완전히 다를 것임을 안다, 뼈대도 없고, 거의 보이는 벽돌 한 장도 없이, 모든 것이 희미하다, 그러나 심장은, 열정은, 기치는 안개 속에 환히 밝힌 불빛처럼 모두 선명하다. 그리고 나는 그렇게 대단한 유희함과 부조화, 그리고 내 뜻에 근접한 역동적인 빛을 밝힐 여지가 있다. (DVWV 22)

그녀는 『제이콥의 방』을 구상하며 “새로운 소설을 위한 새로운 방법 (a new form for a new novel)의 글쓰기를 시도할 것임을 암시한다(DVWII 13-14). 하지만 작품의 실험적 형식은 단순히 글의 구도에 관한 문제만을 언급하지 않는다. 울프의 작품은 내용과 형식이 치밀하게 연결돼 있으며, 이것을 글의 구조로 구성하기 위하여 이중적인 내용의 틀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즉 내용의 틀은 제이콥에 대한 전형적인 전기적 구성과 이와 상반되는 내용에 대한 대립으로 나타난다. 이미 거론했듯이, 작품은 제이콥의 삶을 직선적인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연대순으로 기술하는가 하면, 스토리상의 필연적인 인과관계 없이 돌연히 제이콥의 죽음을 암시하고 친구 보나미가 그의 이름을 애타게 부르는 것으로 끝을 맺는다(186). 또한 화자는 제이콥을 잘 생기고 지적이며 빅토리아 시대의 지식인으로 그리는가 하면

전혀 파악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는 인물로 거듭 강조한다. 게다가 서술자는 제이콥과 여성 인물들 간에 일어난 로맨스를 사실주의적으로 상세하게 묘사하는가 하면 때로는 제이콥이 존재하는 인물인가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그를 유명과 같은 이미지로 제시하기도 한다. 이것이 바로 이중적이며 상반되고 대립적인 내용의 틀이다. 이 같은 대립은 평행선상에 위치하여 절대적인 간격을 유지하는 것과 같은 모순적 관계로 재현된다. 다시 말해 소설은 이중적인 이야기의 골조가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평행한 상태로 진행된다. 이것은 『제이콥의 방』에 대한 구조적인 접근방식, 즉 이중적이며 모순적인 구성방식이다.

이 구성은 제이콥의 인상에 대하여 서로 대조적이며 상반된 두 입장을 견지하는데, 이 두 입장의 차이를 구조적 차원에서 공간적 형태로 이미지화할 수 있다. 두 입장 사이에 발생하는 모순성 그 자체는 간격, 간극이라고 명명할 수 있으며, 이것은 울프의 에세이에서 하나의 ‘공간적 이미지’로 부각된다. 이 간극은 “안개 속에 환하게 밝힌 불빛 (CR I 154), “역동적인 빛 에 비유되어 설명될 수 있다 (DVWV 22). 울프의 에세이 「현대 소설」은 그녀가 에드워드 시대 작가들의 글쓰기 기법에 반격을 가하며 “자신만의 목소리, 자신만의 글쓰기에 대한 입장을 확고히 하려는 맥락에서 쓰인 것이다(CR I 152). “모든 것이 희미하다, 그러나 … 안개 속에 환히 밝힌 불처럼 모든 것이 선명하다 라는 대목은 울프가 자신만의 목소리로 소설이 얼마나 삶을 ‘실재적이며 현실감 있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연결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CR I 154). 울프 작품에 나타난 글의 구조의 문제는 소설 그 자체가 삶을 가장 근접하게 재현할 수 있는 관점적인 측면에서의 대안을 제시한 것과 같다. 이차원적이며 평면적으로 배치된 글이 삼차원적이며 공간적 양식으로 그려지기 위해서는 이중적인 구성방식이 요구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재현하는 방법은 글의 공간적 구조를 특징짓는 간극을 작품에서 끊임없이 선별하고 구체화하여 보여주는 것이다. 『제이콥의 방』은 방이라는 개념의 공간적 이미지를 도입하여 이중적인 글의 구성이 빚어낸 공간적 공백을 반복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제이콥이라는 인물을 구성해 낸다.

글의 모순적인 구조는 전통적인 소설의 플롯이나 인물 같은 “뼈대, 혹은 “벽돌 한 장 없는 새로운 형식, 새로운 틀을 세우기 위한 작가의 통찰력 있는 의도가 녹아져 있음을 시사한다(DVWV 22). 하지만 울프가 말하는 새로운 형식은 19세기적인 소설의 재현방식, 이른바 제인 오스틴(Jane Austen)의 작품과 같이 글의 짜

임과 구성이 탄탄한 소설의 형식을 완전하게 거부하거나 경시하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서두에 밝힌 것처럼 새로운 글쓰기는 급변하는 현대인의 삶과 경험을 더욱 현실감 있게 작품에 투영함으로써, 독자들과 소통하기 위한 작가의 선견자적인 시선에서 기인한다. 울프가 역설한 새로운 형식은 “눈에 보이는 사물을 어떻게 인식하여 마음에 반영할 것인지의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Holmesland 23). 오드바 홈즈랜드(Oddvar Holmesland)는 그녀는 “밖에 있는 세상 보다는 안에 있는 마음을 조명하는 데 마음의 힘을 사용 한다 고 지적한다(23). 울프 작품에서 이 마음의 힘은 인물들 간에 인상으로 맺어진 일시적인 관계의 틀, 관계 망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울프는 자신의 에세이에 동시대의 작가인 제임스 조이스(James Joyce)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며, 자신이 실험하여 세우려는 글쓰기는 지극히 개인적 목소리, 혹은 절대적 권위를 부여한 작가의 목소리를 가능한 한 축소하고 저지하려는 의도가 내포돼 있음을 밝힌다(Flint xvi). 이러한 맥락에서 그녀는 내면에 집중하는 것에 대한 한계와 위험을 분명히 인식하고, 글의 구성적 차원에서 인간의 내면을 어떻게 정의하고 구분하여 하나의 내러티브로 엮어낼 것인지에 몰두한 것이다.

울프는 인간의 내면을 정의하고 구분할 때 관찰자가 사물 밖에 서서 그 대상을 바라보며 그 순간 마음이 작용하는 것에 대하여 강조한다. 「소설의 단계」(“Phase of Fiction”)에서 그녀는 소설가들이 실제의 삶에서 불러들인 일상적인 “반응을 분리시킴으로써 “대상 그 자체 에 관심을 갖게 한다고 말한다(82). 이 때 독자는 어떠한 힘의 영향도 받지 않는 채, “마음이 작동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것의 작용이 “패턴 을 만들어내는 것을 보며 즐거워한다는 것이다(CE II 82). 이 같은 원리로 구성된 것이 바로 ‘인상’이며, 관찰자가 관심을 갖고 바라본 것이 “대상 그 자체 (the thing itself)가 된다(CE II 82). 여기에 제이콥이라는 인물 자체는 존재하지도 않으며 인지될 수도 없다. 왜냐하면 이 순간 관찰자가 보는 것은 자신의 마음이 그 대상에 작용하여 인식된 인상이고 그의 눈에 비춰진 상은 인지된 것에 대한 순간적인 구성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작품에서 제이콥을 묘사한 인상들과 장면들은 너무도 다양하고 대립적이어서 그의 구성체를 일정한 패턴으로 나타내지 않는다. 작품의 제목이 ‘제이콥 플랜더스’(Jacob Flanders)가 아니라 ‘제이콥의 방’인 것처럼 말이다. 다만 소설은 다른 등장인물이 제이콥을 응시함으로써 조직되는 수많은 인상들을 재현하고 구성하여 분류하는 방식으로 엮어진다.

만들어진 인상들과 장면들은 제이콥에 관한 것이 아니라, 등장인물들과 관계된 구성물이다. 어떻게 보면 울프적 시각에서 ‘제이콥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출발서부터 잘못된 물음일 수 있다. 제이콥이란 인물은 관찰자의 인상들을 모은 집합적인 산출물이며, 이 작품의 제목처럼 상징적으로 구획 지어져 분리된 공간으로 재현될 뿐이다.

작품은 제이콥이 등장할 때마다 그와 대상 간에 물리적이면서도 심리적인 거리가 발생하도록 서술한다. 첫 장은 형인 아처(Archer)가 잃어버린 어린 제이콥을 찾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아처는 여러 번 ‘제이콥—! 제이콥—!’을 부르고, 이어 화자는 느닷없이 이 목소리에 관한 이미지를 부여한다. “그 목소리에는 독특한 슬픔이 배여 있었다. 온 육체로부터, 온 열정으로부터 벗어나 순전한 채로 세상으로 나아가는, 외로이 대답 없이 바위에 부딪치는—그런 소리로 들렸다 (5). 바위에 부딪쳐 울리는 소리는 아처와 제이콥 간에 공간적 간격을 부여하는 동시에, 슬픔의 이미지가 서려 있는 ‘잃어버린’ 제이콥을 암시한다. 소설은 제이콥의 정체성을 제시하되, ‘잃어버린’이라는 이미지를 사용함으로써 제이콥의 인상이 순간적으로 구성됨을 시사한다. 제이콥을 부르는 아처의 소리는 그의 인상을 구성하고 이것은 공간적 이미지로 그려진다. 즉 공간적 간극은 소리의 울림을 통하여 일시적으로 물리적 거리를 만들어내고, 이내 사라질 제이콥의 정체성은 아처의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감정적인 어휘들로 드러난다. 물론 인상은 한시적으로 부여된 관계성, 예를 들어 길을 잃은 어린 제이콥과 그를 찾는 형 아처 사이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이 공간은 영속적이며 견고한 건축물의 개념이 아니다. 제이콥의 인상이 아처에게 투영되어 소리의 울림을 만들어내고, 이들 간의 연결고리가 형성됨으로써 공간적 거리를 발생시킨다.

그런데 소설은 공간적 거리와 함께 심리적 상태를 재현하는 내면의 이야기를 다룸으로써 내러티브의 이중적 면모를 보여준다. 앞서 언급했듯이 넓은 의미에서의 이중적 구성이 전기적 형식을 띤 제이콥의 일대기와 전혀 파악할 수 없는 제이콥의 이야기라면 좁게는 제이콥의 일대기를 시작하는 첫 번째 장에서 제이콥을 잃어버린 사건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소설은 처음부터 슬픔에 젖은 어머니 베티 플랜더스(Betty Flanders)의 모습을 묘사하기도 하고, 잃어버린 동생을 찾는 아처의 상실감을 그려내기도 한다. 제이콥의 정체성을 파악하는 데 있어 이 같은 부분은 모순적인 양상을 반영한다. 작품의 주인공이 제이콥임에도, 소설의 시작에서부

터 제이콥의 부재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의 부재는 작품의 서두뿐 아니라, 소설 곳곳에 제이콥의 방에 제이콥이 없는 상태로, 또는 아무런 예고 없이 전쟁터에서 돌아오지 않는 죽음의 정황으로 암시된다. 글의 이중적 구조는 상반되고 대립되는 '관계적 차원'에서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소설이 갖는 모순성은 제이콥의 정체성과 관련된 핵심적인 뼈대와 같은 내용들이 서로 충돌하도록 의도적으로 상반되게 배치되었음을 말해준다. 제이콥의 인상은 관계적 구도에서 구성되며, 그와 관련된 내용적 측면에서의 세밀한 항목들이 엇갈리게 교차됨으로 내용들 간의 '차이'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이 차이는 상반되는 내용이 배치됨으로 형성되는 관계적 차원에서의 '간극'을 의미한다.

제이콥의 인상은 스스로 형성되는 것이 아닌, 관찰자와 대상 간에 이루어진 관계적인 내용들의 집합체이다. 제이콥과 다른 인물들은 일상적인 에피소드를 통해 서로 관계를 맺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공간적 거리를 부여받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제이콥의 정체성과 관련하여 대치되는 내용들이 내용 그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순적인 특성에 의해 생성된 그 차이, 간격에 있다. 그 까닭은 이들 간의 차이 또는 간극이 공간적 구도에서는 빈 방의 형태와 같은 공간의 여백을 드러내는 패턴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소설은 제이콥의 정체성과 연관된 내용들의 차이가 공간적 양상으로 전환되어 형상화되는 과정을 계속 보여준다. 이것은 내용과 형식이 긴밀하게 연관되었음을 보여줄 뿐 아니라, 내용적인 부분이 소설의 구조적인 측면으로 전환될 수 있음을 내포한다. 인상을 말해주는 공간적 형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발생하고 사라지는 것을 반복하기 때문에 순간적인 구성물이 될 수밖에 없다. 다만 이 구성물은 상반적인 구성요소들이 교차하며 끊임없이 삼차원적인 형상을 만들어내고 유형화된다. 즉 실재와 허구, 있음과 없음, 여성과 남성 등을 다뤄내는 이중적인 내러티브는 내용적 차원에서 차이를 만들어내고, 인상과 더불어 형성되는 공간적 구도에서 '제이콥이 없는 빈 방'이라는 이미지를 차용하여 구성된다.

결국 『제이콥의 방』은 인상들이 모여져 구성된 결과물인 동시에, 공간적 이미지들이 패턴화되어 집결된 구조물이다. 그리고 제이콥의 방에 대한 상징은 그의 정체성이 구성되는 방식과 동일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방은 외형적인 틀을 의미하고, 이것은 객체 간에 이루어진 관계적 틀에 대한 유형을 뜻한다. 여기서의 공간은 등장인물의 보편적인 정체성, 즉 성별내지 성격, 취미 등을 드러내는 단순

한 영역이 아니다. 제이콥의 방은 내러티브의 이중적인 면모를 보여주는데, 이것은 외형적인 틀인 동시에 ‘주인공이 없는’ 내면의 상태를 내포한다. 즉 외연과 내연, 형식과 마음, 유형과 무형, 실재와 허구의 차이를 제이콥의 빈 방으로 상징한 것이다. 비어있는 제이콥의 방은 소설의 초반부인 3장과 맨 마지막 장에 동일한 문구로 묘사되어 반복된다. “빈 방의 공기는 무심하고, 그저 커튼을 약간 부풀릴 뿐이다. 항아리의 꽃은 약하게 움직인다. 버들가지로 만든 안락의자의 가지 하나가 삐걱거린다, 거기에 아무도 앉아있지 않음에도 (38, 186). 빈 방에 관한 반복적인 묘사는 마치 독자가 제이콥이 구성되는 방식과 패턴을 놓칠 것을 대비하여 마련해 놓은 장치와 같다. 작품의 초반과 후반에 동일한 문구를 삽입한 것은 공간적 구성임을 더욱 확고히 다지기 위한 서사적인 구도의 특징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소설은 통상적으로 직선적인 시간의 전개에 따라 평면적이며 일차원적으로 구성된다. 이 같은 맥락에서 소설의 공간성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시간의 개념이 다르게 적용될 수밖에 없다. 쥘리엥 로이드(Genevieve Lloyd)는 울프 작품에서의 시간은 과거 문학사적인 의미에서의 인물의 정체성이 형성되는 방식의 일환으로 작용하지 않는다고 역설한다(9). 그는 20세기 현대 작가들이 다루는 인물의 의식은 시간의 전개에 따른 것이 아닌, 이 의식 안에 개별적인 시간성(temporality)이 존재함을 강조한다. 즉, 울프 작품에 나타난 인물의 정체성은 시간 전개에 따른 사건과 행동, 생각 등을 통하여 파악될 수 없다. 울프의 인물은 사건의 곡절을 전개하거나, 갈등을 경험하면서 이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내는 주인공이 아니다. 심지어 작품의 중심인물이 누구인지조차 구분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소설의 주인공과 같은 인물들이 갑작스럽게 죽거나 죽음의 전조를 드러내기 때문이다. 『제이콥의 방』에서의 제이콥(Jacob)은 전쟁에 나가 전사하는 것으로 유추되는가 하면, 『등대로』에서 램지 부인(Mrs. Ramsey)의 죽음은 필연적인 인과 관계로 설명되지 않고 생략됨으로써 독자들을 당혹스럽게 하기도 한다. 아울러 등장인물에 관하여 속속들이 알고 파악해야 하는 작품의 화자는 스스로 인물들에 대해 잘 알 수 없다고 거듭 밝히기도 한다. 울프 작품에서 다뤄진 시간의 개념은 새로운 형식의 소설에 근간이 되는 등장인물의 구상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이것은 인상이라는 매개를 통하여 순간적인 시간을 공간적 양식으로 담아냄으로써 제이콥의 정체성이 구성되는 방법을 보여준다. 이것이 바로 로이드가 강조한 ‘시간의 현재성’이며, 소설은 이 시간의 현재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제이콥의 빈 방에 관한 묘사를

현재형(is)으로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작품의 시작과 끝에 동일한 문구를 넣음으로, 순간적으로 형성된 공간에 개별적인 시간성을 부여한 것이다. 이것은 작품의 초반과 후반이라는 직선적인 시간의 흐름과 공간에 독립적인 시간성을 부여하고 대비시킴으로써, 이중적인 내러티브의 구조를 드러낸다. 그리고 내러티브의 이중성에는 항상 ‘비어있는’ 방과 같은 공간적 이미지로 재현되는 간격, 혹은 간극이 존재하게 된다.

3장은 케임브리지로 향해가는 기차 칸에서 노먼 부인(Mrs. Norman)이 만난 제이콥의 인상을 다룬다. 화자는 “아무도 그를 그의 존재 자체로 보지 않는다. 나이 든 부인과 같이 기차 칸에 앉아 있다는 사실 말고는 이라고 명시한다(29). 즉 소설은 노먼 부인이 젊은 낮은 남자를 바라보는 인상만이 제이콥을 알 수 있는 “힌트 가 됨을 이야기한다(29). 노먼 부인은 제이콥을 자신의 아들에 빗대어 “마치 어린아이가 떨어뜨린 구부러진 핀이 소원을 비는 소용돌이 속에 빠져 영원히 사라져 버리는 것처럼 이라고 상상한다(29). 그녀는 제이콥을 본 순간 자신의 아들의 어린 시절을 생각하며 그와 잠시 연결고리를 형성하지만, 이내 “젊은이의 모습은 완전히 그녀의 마음속에서 빠져나가 버린다(29). 제이콥에 대한 노먼 부인의 인상은 소용돌이라고 하는 서클의 이미지를 차용하여 외적인 틀을 부여한 동시에, 이내 영원히 사라질 내면의 상태를 재현한다. 또한 여기서 이중적 내용의 차이는 화자가 제이콥을 잘 파악이나 한 것처럼 “단호하고 젊음이 넘치며 무심한 동시에 “사람을 압도하는 듯 보인다고 단언했다가(28), “사람에 대해 한마디로 규정해보려는 것은 부질없는 일 이라고 일언지하에 스스로의 판단을 일축시켜 버리는 데서 나타난다(29). 이때 소용돌이라는 서클의 이미지는 노먼 부인의 아들에 빗대어 ‘규정짓는’ 제이콥의 인상과 ‘전혀 파악될 수 없는’ 제이콥이 대치됨으로, 내용의 차이를 공간적인 형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 구성은 인상으로 맺어진 일시적인 연결망 속에 두 구성성분 간의 ‘차이’를 드러냄으로써, 공간의 성격은 떨 뿐 아니라 이중적 내러티브를 보여준다.

이와 같은 예는 제이콥과 줄리아 헤지(Julia Hedge), 플로린다(Florinda), 그리고 패니 엘머(Fanny Elmer) 등 여성 인물들 간의 관계에도 재현된다. 먼저 줄리아는 대영 박물관 도서관에서 크리스토퍼 말로(Christopher Marlowe)의 책을 베끼는 제이콥을 발견하게 된다. 여권론자인 그녀는 옆에 있는 제이콥을 가리켜 격앙된 감정으로 “도대체 왜 엘리엇(Eliot)이나 브론테(Brontë)의 이름을 새길 자리를 남

거두지 않는 거지? 라고 불평하며, 저 젊은 남자가 하는 일이라곤 시를 베끼는 것 말고 무엇이 있는가라고 비난한다(111). 이에 대하여 화자는 제이콥은 “미래의 피와 살이 달려있는 여섯 명의 젊은이 중 한 명이기 때문에 당당하고 위풍 있으며 줄리아가 충분히 싫어할 만하다고 반박한다(112). 그녀는 제이콥을 이 시대의 계승자로서의 전형이라고 규정하고, 자신을 상속인이 아닌 비주류에 위치하도록 함으로써 대비되는 상황을 인상으로 끌어낸다. 케임브리지 대학생의 특별함과 이 시대의 상속자로서의 남성성이 강조된 제이콥은 줄리아에게 당대의 가부장적인 젊은이로 비취질 뿐이다. 여기서 소설은 제이콥을 재현하는 방식에 있어 당시 영국사회의 모든 해택을 누리는 전형적인 남성의 입장과 이와 정반대의 상황에 처한 여성의 입장을 줄리아의 반감과 미움과 열등의식으로 극대화하여 대비시킨다. 줄리아의 눈에 비취진 제이콥은 그의 개인의 특성이나 개성을 알 수 있는 단서들을 제공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화자는 동시에 “아무리 우리 머리와 몸이 충분히 독실하다 할지라도 사람이란 무릇 개성이란 것이 있기 마련이다 라고 역설한다(31). 어떤 사람은 푸른색을 좋아하고, 또 어떤 사람은 갈색을 좋아한다고 덧붙인다. 화자는 시대가 요구하는 전형적인 남성상이 제이콥에게 부여된 것에 반하여, 과연 그에게는 개인의 고유한 특성인 개성이 존재하는지 반문한다. 슈네비에브는 제이콥의 정체성은 언제나 “개인적인 것과 일반적인 것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불안정한 것이며, “제이콥의 생각들로 주어지는 단편들은 개인의 성격을 드러내기 보다는 그의 시대와 계급의 젊은 남성들의 전형을 예시한다고 지적한다(149). 이 장면은 시대적인 산물인 보편적인 젊은 남성의 전형과 개인의 고유한 특성 또는 개성을 대비시킴으로써 제이콥의 인상에 대한 차이를 발생시킨다.

이렇듯 내러티브의 이중성은 일반적인 성격의 것과 개인적이며 개별적인 성질의 것을 병렬적으로 배치하여 부각시킨다. 슈네비에브는 상반되는 요소들 사이에 존재하는 것을 “불안정한 것이라고 규정지었고(149), 작품에서 화자는 이것을 이렇게 명명한다. “때로는 인물들의 인상을 즉각적으로 지울 수 없는 것도 사실이지만, “가끔 그 인상은 헛되이 떠돌다 어정거리며 이쪽 아니면 저쪽으로 날아가버린다고 설명한다(162). 작품은 제이콥에 대한 피상적이며 단편적인 묘사와, 동시에 이와 상반되는 주장이나 물음들을 갑작스럽게 제시함으로써 전혀 다른 두 종류의 내용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도록 상황을 설정한다. 슈네비에브가 이 때 형성된 ‘차이’를 불안정한 것이라고 보았다면 울프는 이것을 “이쪽 아니면 저쪽 이

라는 순간적 상황을 지시하는 것으로 다룬다(162). 제이콥의 정체성은 고정적이며 확고한 그 무엇이 아닌, 한시적으로 생성되었다가 사라지는 공간적 성격을 드러낼 뿐 아니라 상반되는 내용의 ‘차이’를 내포한다. 이로 인하여 그의 정체성은 ‘이 쪽 또는 저쪽,’ ‘불안정한’ 구성물로 비취지는 것이며, 이것은 제이콥의 인상과 관련하여 공간성과 이중성을 분명하게 제시해준다.

그런데 소설에 나타난 제이콥과 관련된 상반된 견해들이 이중적인 내러티브와 연관된 까닭은 제이콥의 정체성이 그의 인상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제이콥의 인상은 공간적 양상과 함께 대립되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나타남으로, 패턴화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것은 일차원적인 소설의 형태를 삼차원적이며 입체적인 공간의 영역으로 전환되는 패러다임과 같다. 즉 소설에서 재차 언급하는 빈 방 혹은 공명의 외침, 서클 모양의 이미지 등은 제이콥에 대한 이중적 견해들의 차이가 공간적 형태로 드러나 구조화된 것을 재현한 것이다.

제이콥의 인상은 분명하게 그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허구적인 견해이다. 그런데 이 허구적인 생각들은 공간적 이미지의 패턴을 구성하며, 이에 따른 개별적인 시간성을 갖고 있다. 울프는 「현대 소설」(“Modern Fiction”)에서 우리의 “마음은 ‘삶의 일상에 노출되면 “소나기처럼 끊임없이 쏟아져 내리는 셀 수도 없는 분자들 같은 “무수한 인상들 을 받아들인다고 역설한다(154). “소나기처럼 쏟아져 내린다 는 울프의 표현처럼 인상은 그것을 만들어내는 사람의 기억 또는 회상과 연결되어 구성되기 때문에, 앞서 말한 시간의 현재성, 독립적인 시간성을 보유할 수 밖에 없다. 잃어버린 어린 제이콥을 부르는 아처의 공명의 외침이나 제이콥을 자신의 아들에 빗대어 생각하는 노만 부인의 인상, 혹은 죽은 제이콥을 부르는 친구 보나미의 절규가 이에 해당한다. 이럴 경우 독자들은 『제이콥의 방』을 읽으면 읽을수록 제이콥의 일대기의 시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제이콥의 인상이 지시하는 시간들을 수직적인 구조로 쌓아가는 것과 같은 착각을 일으킨다. 한마디로 인상은 대상에 대한 일시적인 기억의 시간이기 때문에, 공간적 형태의 이미지들이 서로 다른 시간성을 보유한 채 결과적으로 희미한 구형의 형체를 지시하는 것과 같다. 희미하다는 것은 공간적 이미지들이 보편적인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생겼다 사라지는 동시에, 공간적 테두리 안에 개별적인 시간성을 담아내는 패턴의 상태를 가리킨다. 이른바 희미한 구형의 형체가 ‘제이콥의 방’으로 비유되며 상징화되는 것이다.

레이첼 보울비(Rachel Bowlby)는 울프의 작품은 “유형(type)을 확정하는 과정이 언제나 필연적으로 진행되며 절대적으로 유일한 개인처럼 보이는 존재가 구조적으로 선행 된다고 지적한다(101). 많은 비평가들이 주장하듯 『제이콥의 방』은 제이콥이라는 젊은이의 성장소설과 같이 ‘중심이 되는’ 표면적인 인물을 내세우지만, 결론적으로 제이콥을 알기 위해서는 “유형을 확정짓는 과정, 이른바 관계성으로 발생하는 공간적 형상의 패턴을 이해해야 한다(Bowlby 101). 이 같은 맥락에서 화자는 방에 없는 제이콥을 찾으러 나서는 것이 아니라, 책장들 사이에 존재하며 공간적 구성을 이미지화한 ‘제이콥의 방’을 밝혀내야 한다고 역설한다(101). “책 속에 있는 거친 삽화들과 그림들, 마치 우리가 책장을 넘기고 또 넘기면 마침내 우리가 찾던 것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라고 화자는 반문한다(101). 아울러 그는 수백만의 책장을 넘기며 우리가 찾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되물으며, “여기 제이콥의 방이 있군 이라고 의미심장하게 말한다(101). 이 장면은 책장을 넘기면 넘길수록 비어있는 공간과 같은 서클 형태의 이미지만 부각되어 재현됨을 역설해 준다.

소설은 제이콥의 방을 지나칠 정도로 상세하고 세밀하게, 사실주의적으로 묘사한다. 그곳은 케임브리지의 네빌즈(Neville's Court) 코트에 있는 꼭대기에 있는 방으로 올라가려면 숨이 차고, 그의 방에 있는 가구들이며 어머니 사진, 그의 책들과 누추한 그의 슬리퍼까지 자세하게 서술된다. 무엇보다 이 방의 특이한 면모는 인물의 존재의 유무와 상관없이 소유주의 흔적을 제시하는 것이다. 작품 마지막 장면에 보나미가 죽은 제이콥의 방을 둘러보며 “모두 그 자리에 그대로 두었네,” “편지는 아무나 읽게 전부 사방에 흩어놓고 말이지 라고 생각한 부분에서도 잘 나타난다(186). 사실 울프의 작품에 사물들은 자주 그것들을 사용했던 사람들의 흔적을 간직하는 것으로 묘사된다(정명희 309). 그럼에도 소설에서 방의 주인인 제이콥은 이 공간에서 책을 읽거나 친구와 대화를 나누거나 잠을 자는 등, 일상적이며 어떤 소소한 행위도 하지 않는다. 소설은 제이콥과 직업여성인 플로린다(Florinda)에 관한 로맨스를 다룰 때도, 두 사람이 제이콥의 방으로 들어가면서 탁자 위에 놓인 어머니 베티(Betty)의 편지를 보았지만 읽지 않고 침실 문을 닫아버린다고 서술한다. 화자는 전통적인 서술자와는 달리 그들을 따라 방으로 들어가지 않으며, 플랜더스 부인(Mrs. Flanders)이 이들의 모습을 보았더라면 플로린다에게 달려들었을지도 모른다고 채치 있게 이야기할 뿐이다.

8장에서 제이콥은 플로린다가 다른 남자와 가는 것을 목격하는데, 화자는 다

소 뜻밖에 제이콥의 상처받은 내면을 상세하게 묘사한다. 이 부분은 다른 어느 에피소드보다 화자와 제이콥 간에 긴밀한 유대관계가 형성돼 있는 것처럼 보인다. 심지어 화자는 운명에 상처받고 집으로 향하는 제이콥을 바라보며 동정한다. 하지만 서술자는 자신과 제이콥의 생각을 분명하게 분리하며, “그의 방으로 따라가는 것, “우린 그것을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선언한다(98). 제이콥의 방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은 울프의 화자가 글쓰기의 대상인 제이콥을 재현하기 위하여 인물의 내면으로 들어가거나 이를 파헤치지 않음을 의미한다. 만일 들어간다 해도, 작품에서 반복하듯 제이콥의 방은 비어있으며 이 빈 방을 통해 제이콥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화자는 “우리가 그의 마음 속 생각을 알고 모르고는 또 다른 문제라고 단언하며, 더 이상 제이콥의 심리상태를 설명하거나 대변하지 않는다(98). 그리고 소설은 “그는 집에 들어와 문을 닫는다 라고 서술하며 불현 듯 사건을 종결한다(98). 제이콥의 방이라는 공간으로 재현되는 이미지의 패턴은 추상적이며 임의적인 종류의 것이 아니라, 섬세하고 사실주의적이며 실질적인 공간의 틀을 의미한다. 제이콥의 빈 방은 관찰자의 감정의 상태와, 대상과 객체 간에 연결된 관계적인 테두리, 그리고 이중적 구조의 패턴화 등을 끊임없이 재현하고 상징화한다. 비숍은 울프가 공간에서의 제이콥의 부재를 의도적으로 삽입함으로써, 인물로서의 제이콥을 파악할 수 없도록 기록했다고 지적한다(148). 이 같은 상태를 가리켜 그는 이 작품이 독자들로 하여금 제이콥의 정체성을 인식하는데 “그 가장자리에 위치하도록 내버려 둔다고 주장한다(148). 여기서 “가장자리, 언저리는 제이콥이 구성되는 방식을 뜻하며, 제이콥이 부재한 공간이 필연적으로 요구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Bishop 148). 빈 방은 제이콥이 부재한 공간임에도, 그의 정체성이 구현되는 중요한 틀이다. 결국 제이콥이 없는 공간에 제이콥이 구성되는 것은 이중적인 내러티브를 집약적으로 시사하는 것이며, 울프의 인물이 창조되는 핵심 원리이다.

IV. 결론

울프는 『제이콥의 방』을 구상하며 “새로운 소설을 위한 새로운 형식의 글쓰기를 시도할 것임을 암시한다(DVW II 13-14). 하지만 작품의 실험적인 형식은 단

순히 글의 구도에 관한 문제만이 아니라, 내용과 양식이 치밀하게 연결돼 있음을 보여준다. 울프는 자신의 에세이에서 전통적인 소설의 플롯이나 인물의 대표적인 특징을 “빠대, 혹은 “벽돌 한 장 이라는 비유적 표현을 들어 설명한다(DIWW 22). 울프의 새로운 형식은 이 빠와 저 빠가 연결되고 한 장 한 장의 벽돌이 쌓여 집을 이루듯 구성되는 방식은 아니지만, 소설과 현대인들의 삶이 매우 밀접하게 맞닿아 있음을 시사한다. 울프가 자신의 에세이에서 과연 소설이 인간의 삶 그 자체를 반영할 수 있는가라고 고찰했듯이, 이 작품의 실험성은 소설의 형식과 내용이 인간의 삶을 재현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제이콥의 정체성은 ‘인상’이라는 매체를 통하여 소설의 양식과 연관되어져 작품을 구성한다. 그의 인상은 관찰자와 대상 간의 관계적 구도 아래 허구적인 견해들이 집합적으로 구성됨으로써 나타난다. 그런데 인상은 두 객체 간의 관계망을 일시적으로 형성하여 공간적 테두리를 만들어낸다. 울프는 이것을 여러 개의 서클 형태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겹쳐지며 “안개 속 환한 불빛과 같은 흐릿한 윤곽으로 드러난다고 주장한다(CR I 154). 이 공간적 구도는 반복적으로 생성되는 동시에, 제이콥과 관련된 상반되는 내용들이 대치되고 있음을 내포한다. 서로 맞닿을 수 없는 평행선의 구조와 같이, 제이콥의 정체성은 이중적인 내용들로 구성되어 그 ‘차이’를 드러낸다. 작품은 이 내용적 차이를 인상이 생성되는 공간적 구조와 함께 제이콥이 없는 ‘빈 방’이라는 상징적 이미지를 도입하여 설명한다. 제이콥의 정체성을 지시하는 공간적 구도는 소설이 전개되는 보편적인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반복적으로 구성되고, 빈 방과 같은 이미지의 패턴을 제시한다. 다시 말해 제이콥의 정체성과 관련하여 대치되는 내용들은 내용 그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순적인 특성을 드러내는 내용의 항목들이 병렬적으로 배치됨으로써 끊임없이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그 까닭은 이들 간의 차이 또는 간격, 간극이 공간적 구도에서는 빈 방의 형태와 같은 공간의 여백을 드러내는 패턴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것은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내용과 형식이 긴밀하게 연관되었음을 보여줄 뿐 아니라, 내용적인 부분이 소설의 구조적인 측면으로 전환될 수 있음을 내포한다.

이 때 형성된 공간적 구도에서의 시간의 개념은 소설의 직선적이며 일차원적인 시간의 흐름과는 완전하게 상이하다. 제이콥의 인상이 투영될 때의 시간은 관찰자의 마음과 생각, 또는 기억에서 출발하여 대상과의 관계에서만 존재하기 때

문에, 인상이 사라지는 순간 함께 소멸된다. 공간적 틀과 더불어 생성된 이 시간성은 개별적이며 독립적인 성격을 드러낼 뿐 아니라, 공간의 일회성과 아울러 객체들 간에 존재하는 바로 그 시간, '현재의' 시간을 반영한다. 소설은 제이콥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데 있어 공간적 서클(circle)과 시간의 현재성을 반복적으로 생성하고 소멸시키며 삶이라고 하는 형태에 근접하게 된다. 어떻게 보면 현대인들의 마음과 생각은 순간적으로 형성되는 관계망과 이중적인 내러티브의 구조 속에 삶이라고 하는 패턴을 구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여성과 남성, 젊음과 늙음, 개인과 공동체, 기쁨과 슬픔, 빛과 어둠, 삶과 죽음 등 모순적인 내용들이 끊임없이 교차하여 희미한 테두리, 하나의 패턴을 형성하듯 삶이 재현됨을 보여준다. 필연적인 인과관계가 수반된 수평적인 세월의 흐름에 따라 인간이 늙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현시대의 우리는 관계성으로 엮어진 순간적인 시간을 재구성하고 다시 망각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울프가 『제이콥의 방』에서 다뤄진 새로운 형식의 소설을 현대인들의 삶 그 자체(life itself)라고 명명한 까닭은 바로 여기에 있다.

(국민대)

인용문헌

- 정명희. 「『제이콥의 방』-버지니아 울프와 월터 페이터」. 『영어영문학』 59.2 (2013): 295-317.
- Abrams, M. H. *The Norton Anthology of English Literature Vol. II*. Ed.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2000.
- Bishop, Edward L. "The Subject in *Jacob's Room*. *Modern Fiction Studies* 38.1 (1992): 147-75.
- Bowlby, Rachel. *Virginia Woolf: Feminist Destinations*. Oxford: Basil Blackwell, 1988.
- Caughie, Pamela L. *Virginia Woolf and Postmodernism: Literature in Quest and Question of Itself*. Urban and Chicago: U of Illinois P, 1991.
- DiBattista, Maria. *Virginia Woolf's Major Novels: The Fables of Anon*. New Haven: Yale UP, 1980.
- Flint, Kate. "Introduction. *Jacob's Room*. New York: Oxford UP, 2000. xii-xxviii.
- Holmesland, Oddvar. *Form as Compensation for Life*. Columbia: Camden house, 1998.
- Kelly, Alice Van Buren. *The Novels of Virginia Woolf: Fact and Vision*. Chicago: U of Chicago P, 1973.
- Lee, Hermione. *The Novels of Virginia Woolf*. London: Methuen, 1977.
- Levenson, Michael. *Modernism and the Fate of Individuality*. Cambridge: Cambridge UP, 1991.
- Little, Judy. *Comedy and the Woman Writer: Woolf, Spark, and Feminism*. Lincoln: Nebraska UP, 1983.
- Lloyd, Genevieve. *Being in Time: Selves and Narrators in philosophy and literature*. London: Routledge, 1993.
- Love, Jean O. *Worlds in Consciousness: Mythopoetic Thought in the Novels of Virginia Woolf*. Berkeley: U of California P, 1970.
- Marcus, Jane. *Virginia Woolf and Languages of Patriarchy*. Blooming: Indiana UP, 1987.

- _____. ed. *New Feminist Essays on Virginia Woolf*. Lincoln: Nebraska UP, 1981.
- Meisel, Perry. *The Myth of the Modern*. New Haven: Yale UP, 1987.
- Peach, Linden. *Virginia Woolf*. London: Macmillan, 2000.
- Woolf, Virginia. *The Collected Essays*. Vol. I. New York: Harcourt, Brace & World, 1950. Abbreviated as *CE*.
- _____. *The Collected Essays*. Vol. II. London: The Hogarth Press, 1967. Abbreviated as *CE*.
- _____. *The Common Reader*. First series. New York: Harcourt, Brace & World, 1925. Abbreviated as *CR*.
- _____. *The Diary of Virginia Woolf*. Vol. 2. Ed. Ann Olive Bell. New York: Harcourt Brace Jovanovich, 1980. Abbreviated as *DVW*.
- _____. *The Diary of Virginia Woolf*. Vol. 5. Ed. Andrew McNeillie. London: Hogarth Press, 1984. Abbreviated as *DVW*.
- _____. *Jacob's Room*. Ed. Vara Neverow. New York: Harcourt, 2008.
- _____. *To the Lighthouse*. New York: Harcourt, 1927. Abbreviated as *TL*.
- _____. *A Writer's Diary*. London: Hogarth Press, 1953.

Abstract

Woolf's Literary Impressionism and Spatial Construction in
Jacob's Room

Yunjung Kim

This article seeks to explore “a new form for a new novel” experimented by Virginia Woolf through her 1922 novel *Jacob's Room*. Most of Woolf's fictions adopt a double-logic narrative; by exploiting impressionistic methods in her novel, this narrative categorizes Jacob's various impressions into two different territories in the making of the character. The discrepancy in views on Jacob's impressions is a representation of the empty room. This narrative form engenders *Jacob's Room*, a self-reflexive novel epitomizing Woolf's idea about new forms of writing, often analogized with life itself by Woolf, in the age of literary modernism and impressionism. To present how the novel's narrative form is made different from the conventional one, which exclusively relies on verbal speeches in representing characters and plotting events, this article examines the novel's use of the “empty room, one spatial image embodied in the text. In doing so, this article shows that the spatial construction—the empty room—contributes to the making of the novel's narrative form.

■ **Key words** : impressionism, double narrative, spatial construction, dual narrative, Virginia Woolf, *Jacob's Room*
(인상주의, 이중적 내러티브, 공간적 구성, 버지니아 울프, 『제이콥의 방』)

논문접수: 2016년 5월 16일

논문심사: 2016년 6월 17일

게재확정: 2016년 6월 20일